

이건희 회장 “생활가전 개도국 이전” 충격 발언

‘삼성광주전자 불똥될까’ 초비상

광주경제 20% 차지 … 일부만 이전해도 ‘휘청’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8일 생활가전 사업에 대해 “한국에서는 할만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말해 생활가전 비중이 20%를 점하고 있는 광주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기사 3면〉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투명사회실천협약행사에 참가한 뒤 기자들을 만나 “(생활가전 관련) 내수는 해야겠지만 수출은 아니다. 개도국으로 넘겨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해 생활가전라인의 향후 이점을 강조해 시사했다.

의 해외 이선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회장의 이같은 발언이 전해지면서 광주시와 삼성광주전자가 진의 확인에 들어가는 등 초비상이 걸렸다. 삼성광주전자가 광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대(2006년 매출 3조1천억원, 생산유발효과 9천600억원, 고용창출효과 1만2천4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절대적인 만큼 광주삼성전자 생산라인이 일부라도 이전할 경우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삼성광주전자는 현재 냉장고·에어컨·세탁기·청소기 등 생활가전을 생산하고 있다.

삼성광주전자 관계자는 11일 “이 회장의 발언은 지역사업장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원론적 해석을 했다. 그러나 이 회장의 발언 직후 삼성그룹측은 “생활가전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산기지는 원가절감이 가능한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혀 자기전



경쟁력이 떨어지는 생활가전을 해외로 이전한다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광주지역과 삼성광주전자가 긴장하고 있다. 삼성광주전자 세탁기 생산라인.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벼 도열병’ 완전퇴치 길 열었다

서울대 이용환 교수팀, 유전기능 분석 성공…年 6천만명 식량증산 기대



A black and white portrait of Professor Il-yong Han, a middle-aged man with glasses, wearing a light-colored shirt and a dark jacket. He is looking slightly to his left.

이용환 교수

유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팀을 이끄는 이 교수가

2005년 벼 도열병 병원균 국제 컨소

시엄에 참여해 세계 최초로 도열병

을 일으키는 곰팡이 병원균의 유전체

염기 서열을 완전 해독해낸 데 이어

거둔 연구 성과다.

만 1천 70 가지 료
민든 각각의 생
물학적 특성을
실험해 741개 유
전자의 특성을
규명했으며 이
가운데 202개가
병원성과 관련된

/연합뉴스

국내 연구진이 매년 세계 쌀 수확량의 10% 가량을 감소시키는 벼 도열병 병원균의 유전체 기능 분석에 성공했다.

이용환 서울대 교수(45·농생명공학부)의 BK21 농생명공학사업단 연구팀은 12일 벼 도열병을 일으키는 곰팡이 병원균의 유전자 가운데 병원

이나 마디, 목 등에 달라붙은 뒤 안으로 침투, 영양분을 빼앗아 먹고 벼를 죽게 하는 병원균으로 완전 퇴치될 경우 약 6천만 명의 연간 식량에 해당하는 쌀이 증산될 것으로 연구팀은 전망했다.

물품구입 비용과 상봉행사용 운수기
재의 제공을 3월 말부터 시작하기로

남북 적십자는 지난 9~10일 금강산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지난해 7월 중단된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오는 21일부터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물품구입 비용과 상봉행사용 운수기재의 제공을 3월 말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 적십자 대표단은 애초 9일 면회를 예상한 바 있었지만, 최근 북한은

회소 건설 재개와 관련한 합의를 낼 예정이었으나 북측 화상상봉센터 지원, 북측 연락인원 상주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여 실무접촉을 하루 연장했다.

이번 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남측은 화상상봉센터 건설 설비자재와 함께 물품구입비 및 행정경비 등 명목으로 4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레이크힐스순천CC 1차회원 모집

